



성경 시대의 명예. 수치 문화와 현대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

12월 11일 메릴랜드 KBS 세미나
김상일(서평 쓰는 남자: www.likeellul.com)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에: 감정의 재발견, 마음의 재발견

- 유튜브 비디오: 감정의 재발견:

https://www.youtube.com/watch?v=Uj4TdT5PTsl&ab_channel=EBSCulture%28EBS%EA%B5%90%EC%96%91%29

- 왜 감정(정확히는 명예.수치)인가

- 1) **성육신적 성경 읽기:** 우리의 이성과 비판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대신, 우리의 감정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러한 통찰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끈다. (Jea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Dan Allender, the Cry of the Soul: How Our Emotions Reveal Our Deepest Questions about God) (감정>욕망>상상력>내러티브)
- 2) **성육신적 성경 읽기:** 우리 시대는 감정과 욕망에 민감한 시대이며, 우리가 성경을 성육신적으로 읽어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동료, 친구, 배우자, 자녀들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authentic) 있게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우리 시대는 명예.수치 문화 코드가 점점 더 득세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 3) **성육신적 성경 읽기:** 성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만 한 철학 교과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모든 면을 다 담아내는 책이다. **성경은 특히 마음(히브리어 lev)에 집중한다.**
- 4) **성육신적 성경 읽기:** 성경 시대는 명예.수치 문화가 득세했던 시대였으며, 따라서 그 시대의 문화를 알아야 제대로 성경을 읽어낼 수 있으며,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마음의 재발견: 감정을 통해서 마음에 닿다

◦ 마음(히브리어 “레브”)이란?

“마음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지향점, 우리가 가장 깊이 헌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유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잠 3:5; 23:26)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망을 두는 것이며,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는 곳이며, 우리의 상상력을 가장 자극하는 것이 있는 곳(마 6:21)입니다. 모든 마음에는 지향하는 바, 즉 어디론가 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창 6:5). 마음의 방향은 곧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사고, 느낌, 결정과 행위 모두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합리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이루어낼 만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아끼고 소중히 다루는 것이 우리의 전인(the whole person)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마음을 최고로 여기셨던 것도 당연합니다(삼상 16:7; 고전 4:5; 렘 17:10) 선지자들이 구원의 목적을 단순히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닌, 영적 갱생을 통해서 마음에 율법이 새겨지는 것(렘 31:33)으로 보았던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것을 따릅니다.

(Tim Keller, the Revolutionary Christian Heart.

<https://timothykeller.com/blog/2015/2/6/the-revolutionary-christian-heart>)

이 세미나를 통해서...

- 1) 창세기의 타락 내러티브 읽기: 죄의 표현으로써의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 2)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특세 (찰스 테일러, 진정성의 윤리)
- 3) 수치심이 없으셨기에 자유롭게 사랑하셨던 예수, 당대의 명예-수치 문화 코드를 모두 뒤엎으시다 (도널드 크레이빌,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 4)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예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guilt)만을 해결하셨는가?
- 5) 바울의 공동체론과 수치에 대한 저항으로써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기 (커트 톰슨, 수치심; 브레네 브라운,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

1) 창세기의 타락 내러티브 읽기: 죄의 표현으로써의 수치를 이해하는 것이 왜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가

◦ 수치와 죄책(shame and guilt)

-1) 두가지 모두 감정이며, 자기 평가(self-assessment)에 관한 감정임: (죄책: I did wrong; 수치: I am wrong.)

-2) 죄책의 경우 **법적**이고 **행위 중심적**인 감정이며, 수치의 경우 **관계적**이고 **정체성 중심적**인 감정임. (구약: 수치를 가리키는 단어는 10개이며, 경우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쓰이지만,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공동체에서 평가절하시킨다는 면에서는 모두 같음; 신약: Aischynē (수치를 야기시키는 행위 이후) 과 aidōs (수치를 야기시키는 행위 이전))

-3) 죄책은 행동을 고치면 사라짐; 수치는 정체성이 바뀌어야 함 (수치가 훨씬 어려운 문제이며, 낙인 효과가 훨씬 더 강함) (죄책과 수치의 구분: 브레네 브라운의 “나는 왜 내 편이 아닌가”에 나오는 wifebeaters' group vs. anger management group)

◦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본래적 소명)

◦ 창 2: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인간의 본래적 상태)

◦ 창 3: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타락의 계기: 본래적 소명으로부터의 탈출)

◦ 창 3:7-8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타락의 결과: 관계의 끊어짐, 그리고 숨고자 하는 욕구) → Brene Brown: “shame is the fear of disconnection”

2)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득세 (찰스 테일러, 진정한 윤리)-1

“내 삶의 원동력은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그게 항상 나를 끌고 나갑니다.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계속 노력하다보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지만, 또 다른 일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어중간하고 맹충맹충한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록 내가 무언가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임을 또 다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민은 절대로 끝난 적이 없었고, 내 생각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보그(Vogue) 매거진, 마돈나 인터뷰, 팀 켈러,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The Freedom of Self-Forgetfulness)*에 인용-

마돈나의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현대적 자아의 네가지 특징:

- 공허(emptiness): 계속해서 무언가로 자기를 채워 넣어야 함.
- 고통을 겪음(painfulness): 우리 몸에서 아픈 부분이 우리의 주의를 끌듯이,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우리의 주의를 끌고자 함
- 분주함(business): 남의 주의와 시선을 끌기 위해서 쉴 새 없이 움직임.
- 부서지기 쉬움(fragility): 비어 있는 우리의 자아에 우리는 이미 얘기했던대로 무언가를 계속해서 채워넣는데, 그것들이 단단하고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터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음.

2)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득세 (찰스 테일러, 진정성의 윤리)-2

- 왜 이렇게 되었는가? 현대적 자아와 정체성 담론: 역사적 고찰: 찰스 테일러의 *진정성의 윤리*(the ethics of authenticity)

-현대성의 세가지 병폐

- 1) 도덕적 (종교적), 형이상학적 공통 지평의 붕괴와 동시에 나타나는 개인주의(보통 disenchantment(탈주술화)라고 불리움) → **테일러가 진정성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집중하는 주제**
- 2) 이러한 disenchantment와 함께 나타나는 도구적 이성(instrumental reason: 어떤 일의 궁극적 의미보다는 효율성과 손익 추구를 먼저 따지는 합리성의 한 종류)의 지배
- 3) 개인주의와 도구적 이성으로 운영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모순적으로 자유를 박탈 당하게 됨 (e.g. 인공 지능의 발전,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기 어려움, 자끄 엘룰, the technological society, 기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획일화된 세상).

2)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득세 (찰스 테일러, 진정성의 윤리)-3

◦ 진정성의 연원: be yourself!

-루소와 낭만주의자들(진정성의 초기적 양태): 각 개인은 스스로의 내면을 바라봄으로써 자기 자신이 될 때에만 자연이 그에게 준 본원적 사명(도덕적, 공동체적 등등)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공동체와 도덕을 고려하지 않는 엄격한 계몽주의의 개인주의적 비판 이성에 대한 반발)

-자연과 개인 사이의 이러한 본원적 연결은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 둘 사이를 연결해주던 형이상학적 세계라는 질서가 무너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그러므로 각 개인이 스스로 자신이 되어가는 것은 오직 개인에게만 달려 있고, 오직 각각의 개인만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

2) 현대 문화의 정체성 혼란과 명예-수치 문화 코드의 득세 (찰스 테일러, 진정성의 윤리)-4

◦ 진정성의 현대적 양태: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사람들이 사랑을 포기하고, 자녀 양육을 포기하고 그 대신 커리어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현상은 어쩌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요는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의 추구를 **부르심**이라고 느낀다는 것, 그것이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느낀다는 것,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삶을 망치게 되고 낭비하게 된다고 느낀다는 것에 있습니다.”(진정성의 윤리, 17).

◦ 진정성의 구조적 한계

“간단히 말하면, 진정성이 수반하는 것들은 (A) (i) 자기 발견인 동시에 자기 창조와 자기 구성이며, (ii) 많은 경우에 독창성이며, (iii) 사회적 규칙에 대한 반발, 혹은 우리가 도덕으로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잠재적 불인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성이 요구하는 바는 (B) (i) 사회적 가치의 지평에 대한 개방성이며, (ii) 개인이 자신을 규정하는 데에는 개인 바깥의 존재들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진정성의 윤리, 66-67)

3) 수치심이 없으셨기에 자유롭게 사랑하셨던 예수, 당대의 명예-수치 문화 코드를 모두 뒤엎으시다 (도널드 크레이빌,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 예수를 따른다는 것: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강하게 기반하게 되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사랑하고 함께 어울리는데 주저함이 없는 것.

“예수는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상식을 깨뜨리고 있다. 곧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사람과 어울려 잘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다.”(325)

- 예수가 만난 세 사람의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성적인 낙인) (요 4:1-42), 로마의 백부장(정치적 낙인) (마 8:5-13),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질병과 귀신 들림으로 인한 낙인)(막 5:1-20)
 - 1) 사마리아 여인의 수치: **사마리아 사람, 여자, 남자 갈아치우는 문란함을 가진 여자였음**: 유대인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는 안됨;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여자는 물론 사마리아 여자와는 더더군다나 얘기를 나누어서는 안됨; 경건한 유대인 남자는 난잡한 여자와 얘기를 나누어서는 안됨
 - 2) 로마의 백부장의 수치: **유대 민족을 압제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는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 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마 8:10-12)
 - 3) 거라사의 귀신 들린 이방인의 수치: **불결하디 불결한 사람이었음**: “네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일을 이야기하여라”(막 5:19)

4)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 (guilt) 만을 해결하셨는가?-1

◦ 서구 신학 전통의 죄책 중심 속죄론 (guilt-based atonement)

-어거스틴: “for indeed **the guilt and defilement of sins** committed after that cleansing would be greater and more dangerous.”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Trans. John K. Ryan (New York, NY: Doubleday Books, 1960), 12.)

-어거스틴: “Is there any reason, then, why God should not have created people who, he foreknew, were going to sin? Especially since he would be able to demonstrate, in them and through them, both what their **guilt** deserved and what his grace would give, and since, under God’s creating and directing power, the right order of things would not be perverted by the perverse order of wrongdoers.” (*City of God*, Trans. William Babcock (Hyde Park, NY: New City Press, 2013), Bk XIV, 26.

-어거스틴의 속죄론에 대한 평가: “So, in conclusion, I argue, first, that Augustine’s analysis of **sin as pride** does not apply to those with weak or no sense of self.” Grey, “Augustine and the Legacy of Guilt,” *The New Blackfriars* 70 (1999), 484.

4)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 (guilt) 만을 해결하셨는가?-2

- 어거스틴은 왜 수치의 문제를 자신의 속죄론에서 제외시켰는가? In the case of Augustine, the Edenic narrative in the book of Genesis is the key to placing the status of shame. In the narrative, Adam and Eve as a result of sin came to have *pudenda* (the shamed body parts). Hinting from the fact that shame works against the will, **Augustine saw the uncontrollability of *pudenda* as symptomatic of the body's rebellion against God, and not the problem itself.** “For Augustine, desire not directed toward God is desire wrongly directed. The resulting concupiscence manifests as the uncontrollable *pudenda* or shamed body parts, for which one should feel ashamed. Thus, the body bears the burden and the consequences of the soul's disobedience.” Arel, *Affect Theory, Shame, and Christian Formation*, 63.

4)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guilt)만을 해결하셨는가?-3

- 루터: “When I was a monk, I made a great effort to live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monastic rule. I made a practice of confessing and reciting all my sins, but always with prior contrition; I went to confession frequently, and I performed the assigned penances faithfully. Nevertheless, my conscience could never achieve certainty but always in doubt and said: “You have not done this correctly. You were not contrite enough. You omitted this in your confession.”” Jaroslav Pelikan, ed. *Luther's Work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55), 27:13, quoted in Daniel K. Judd, “Sin, Guilt, and Grace: Martin Luther and the Doctrines of the Restoration,” in *Let Us Reason Together: Essays in Honor of the Life's Work of Robert L. Millet*, ed. J. Spencer Fluhman and Brent L. Top (Provo, UT: Religious Studies Center, 2016), 311-328.
- 루터의 속죄론에 대한 E.P. 샌더스의 평가: “Luther's emphasis on fictional, imputed, righteousness, thought it has often been shown to be an incorrect interpretation of Paul, has been influential because it corresponds to the sense of sinfulness which many people feel, and which is part and parcel of Western concepts of personhood, with their emphasis on individualism and introspection. Luther sought and found relief from **guilt**.” E. P. Sanders, *Paul (A Brief Insight)* (New York, NY: Sterling, 2009), 79.
- 칼빈: ““But if Christ, according to the authority given him by his Father, commands us throughout life to resort to prayer for the pardon of our **guilt**, who will tolerate these new doctors?” John Calvin, ed. John T. McNeil, trans., Ford Lewis Battle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2* (Louisville, KY: WJK Press, 1960), 911.
- 존 웨슬리: “All the rest were partakers in the same **guilt**, as they were in the same punishment.” John Wesley, ed., Thomas Jackson, Sermon 44, 1872: <https://www.umcmission.org/Find-Resources/John-Wesley-Sermons/Sermon-44-Original-Sin>

4)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guilt)만을 해결하셨는가?-4

◦ 죄책 중심 속죄론의 문제

- 1)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막 15:34)
- 2) 당시 로마 군정이 시행했던 십자가 형 자체가 가진 죄인에게 수치를 주는 효과가 예수의 죽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 3) 전반적으로 예수의 죽음을 구약과 신약의 명예-수치 문화 코드 속에서 설명하는데 있어서 죄책 중심 속죄론은 한계를 지닌다.
- 4) honorshame.com (주로 선교학과 intercultural studies 관점에서 서구 기독교 전통이 놓쳐버린 명예-수치 문화 코드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사이트)

5) 바울의 공동체론과 수치에 대한 저항으로써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기 (커트 톰슨, 수치심)-1

-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고전 12:15-20)

→ 그(바울)는 수치심이 시작되는 곳, 바로 우리의 자기 정죄에서 시작한다. 발이나 귀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우리의 부적절함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수치심 수행원에게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음에 장벽을 세워서, 우리의 자아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부분들로부터 분리한다. 이것은 수치심이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을 선호함을 나타낸다. (커트 톰슨, 수치심, 263)

5) 바울의 공동체론과 수치에 대한 저항으로써의 그리스도의 몸 세워가기 (쿠트 톰슨, 수치심)-2

-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전 12:21-26)

→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아주 가벼운 경멸의 기색이라도 내비칠 때마다 우리의 뇌가 하는 말이다. 그것은 하와와 아담이 서로에게 한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비판받을 때마다 듣는 말이다... 그러나 바울은 타인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넘어, 특히 그의 시대를 고려할 때 훨씬 더 비범한 진술을 한다. 그는 더 약한 부분이 더 귀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2-23절). ‘더 약한’ 그리고 ‘덜 귀히 여겨지는’ 이 요소들은 그 문화에서 수치심의 짐을 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바울은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강한 부분들이 더 취약한 부분들에 주의를 돌리면서 그 부분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이 몸의 전체적 건강에 ‘불가결하게’ 기여할 공간을 창조할 때 몸이 유익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수치심에 대한 형세를 역전시킨다. (쿠트 톰슨, 수치심, 265)